

보도설명자료

('21. 2. 1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30년 12GW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언급한 206조원의 REC 수익금은 현재 일부 해상풍력 단지의 REC 수익을 미래에 추진될 사업에 단순 대입한 것으로 향후 변화될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임 (문화일보 2.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통해 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기사에서 언급한 '해상풍력 20GW 운영기간(20년) 동안 206조원의 REC 보조금 투입 필요'에 대해서는,
 - 향후 미래에 추진될 해상풍력 사업에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의 REC 예상 판매금액 수치를 단순 대입한 것으로, LCOE 및 REC 가격하락 등 향후 변화될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임
- ◇ 2.10일 문화일보 <“해상풍력, 199억 들여 당기순익 9800만원 그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4년까지 20GW 규모 보급 계획으로,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자료(전북대) 고려시 서남권 해상풍력 2.4GW에 연간 1조 2385억원(운영기간 20년간 총24조 7700억원)의 REC 보조금이 필요하며,
 - 34년까지 해상풍력 20GW 보급시 20년간 206조원 투입이 필요하고 REC 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동 기사에서 언급한 ‘^①정부는 34년까지 해상풍력 20GW 보급 목표, ^②해상풍력 20GW 운영기간(20년간) 동안 206조원의 보조금(REC 수익금) 투입 필요’ 관련,

* 기사에서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REC 추가가중치를 반영하여 REC 예상수익을 1 kWh당 199.7원으로 산정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따라 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② 향후 미래에 추진될 여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의 REC 추가 가중치와 REC 판매단가를 토대로 예상한 수치를 단순 대입한 것으로,

- 향후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통한 발전단가(LCOE) 하락 및 REC 가격 하락 추세 등 향후 변화될 사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임

* LCOE : (20년) 225~282원/kWh → (30년) 132~165원/kWh (BNEF Global 하락율 적용 예상치)

* REC 평균거래가격(MWh당) : ('18년) 94,949원 → ('19년) 60,434원 → ('20년) 42,711원

□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적정한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을 회수하는 한편,

○ 지속적으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원가절감을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이 기존 화석연료발전의 원가수준(grid parity)에 도달하는 시점을 정책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REC 가중치 등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음

※ 문의 :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044-203-5370) / 김혜원 사무관(5372)